

자취를 시작하면 결심보다 습관이 중요해진다. 냉장고를 어떻게 채울지, 공과금을 어디서 납부할지,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무엇부터 챙길지. 해보면 별것 아닌 일도, 몰라서 해매면 반나절이 사라진다. 몇 해를 혼자 살며 쌓은 북마크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실제로 도움이 된 사이트 주소모음을 정리했다. 광고성 추천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비용을 줄이며 리스크를 낮추는 데 쓰였던 곳들 위주다.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구분했고, 각 사이트를 왜 써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특히 유용한지까지 적었다.

## 첫 일주일, 필수 북마크로 틀 잡기

이사하고 첫 주에는 행정, 안전, 생활 기본기를 세팅해 두면 다음 달이 편하다. 아래 항목들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찾게 되는 곳들이다. 몇 분 투자해 계정 만들고 즐겨찾기만 해도 체감 난도가 푹 떨어진다.

1. 정부24(www.gov.kr) -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각종 증명서 무료 또는 소액 수수료로 바로 발급 가능. 동사무소 갈 시간과 교통비를 아낀다.
2.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월세 세액공제 자료 조회. 월세 사는 자취생이면 공제 항목을 미리 체크해두는 게 유리하다.
3.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 보험료 납부, 자격득실 확인. 직장 변경이나 프리랜서 전환 시 특히 중요하다.
4.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전기요금 조회, 자동이체 등록, 검침일 변경 요청. 월평균 사용량을 확인해 누진제 구간을 넘지 않게 조절하기 좋다.
5. 카카오맵(map.kakao.com) 또는 네이버지도(map.naver.com) - 우리 동네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24시간 약국, 코인빨래방까지 모두 지도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 다섯 가지를 세팅하면 최소한의 행정과 요금, 생활 인프라 파악이 끝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 계약과 보증금, 집을 지키는 공식 정보들

전월세 시장에는 말보다 문서가 중요하다. 공인된 데이터와 증빙이 보증금을 지켜준다. 포털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은 해당 동네의 실제 거래 금액을 보여준다. 같은 평형이라도 층, 방향, 관리비 구조에 따라 체감 가격이 다르니, 화면을 캡처해 두고 중개인과 가격 협상 근거로 삼는다. 전월세 신고

제도와 확정일자는 정부24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받는 것이 깔끔하다. 순서를 헷갈릴 필요 없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흐름이 안정적이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한다. 집주인 명의, 근저당 설정, 가압류 같은 위험 신호를 문자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비용은 몇백 원 수준이지만, 나중에 수천만 원을 지키는 보험 같은 돈이다. 내용 해석이 어렵다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임대차 관련 설명서를 찾아 용어를 정리한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법적 차이, 보증금 우선순위 같은 개념을 20분만 투자해 익히면 [스포츠무료중계](#) 협상에서 고개를 숙일 일이 줄어든다.

## 요금과 계약, 매달 새는 돈 막는 법

전기, 가스, 수도를 합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된다. 계정 분리와 자동이체만으로도 연체를 막고, 조회 습관으로 과금을 줄일 수 있다.

전기는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주소 기반으로 고객번호를 찾아 계정을 이전한다. 검침일이 월말에 몰려 있으면, 급전 사용이 많은 계절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사정이 되면 검침일 변경을 요청해 월 중순으로 분산한다. 누진 구간을 넘었다면 월별 사용량 그래프를 캡처하고, 전열기기 사용 시간을 쪼개는 식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보온을 동시에 오래 켜두는 대신, 냉동식품 해동은 냉장 전이동, 밥은 지퍼백 소분 냉동 후 전자레인지 단기 가열로 바꾸는 습관이 누진 폭탄을 피해가는 데 효과가 컸다.

가스는 도시가스 회사가 지역별로 다른데, 가입과 검침일 조회, 자동이체 등록은 각 사 홈페이지에서 처리한다. 서울이라면 서울도시가스(www.seoulgas.co.kr), 경기 지역은 삼천리자산관리의 가스 사이트(www.samchully.co.kr) 등으로 나뉜다. 난방비가 급등하는 겨울철에는 사용 패턴을 아예 시간표로 만들었다. 샤워는 10분 이내, 취침 전 30분 난방 가동 후 보온. 실온계로 실내가 18도 아래로 자주 떨어진다면 창문 틈새용 문풍지를 덧대거나, 외풍이 심한 벽에 보온 커튼을 하나 붙인다. 1~2만 원 투자로 월 몇 만 원을 절약하는 경우가 흔하다.

수도요금은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사이트에서 관리한다. 서울의 경우 아리수나라(arisu.seoul.go.kr)에서 요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누수가 의심되면 야간에 모든 수도를 닫고 계량기 빨간 바늘이 도는지 확인한다. 미세한 회전도 지속되면 누수다. 바로 사진을 찍어 민원 신청 페이지로 접수하면 점검일정을 잡아준다. 이때 월별 사용량 그래프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통신비는 스마트초이스(smartchoice.or.kr)에서 통신요금제, 단말기 지원금, 품질 정보를 비교한다.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도 부가서비스 정리만으로 월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오래전 가입한 음성 부가가 남아있거나, 데이터 쿠폰이 사실상 쓰이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장보기와 냉장고 운영, 한 달 식비를 반으로

혼자 살면서 식비가 새는 가장 큰 원인은 계획 없이 고르게 되는 소포장 과일, 1+1 유혹, 배달 총동이다. 장보기 경로와 보관을 정리하면 숫자가 그대로 줄어든다.

신선식품은 동네 마트와 새벽배송을 섞는 방식이 안정적이었다. 쿠팡(coupang.com), 마켓컬리(marketkurly.com), SSG(ssg.com) 중 배송 권역과 최소 주문 금액을 비교하고, 냉동 채소와 육류는 새벽배송으로, 즉석 소량 채소와 두부, 계란은 동네 마트에서 산다. 냉동 블루베리와 냉동 혼합 채소는 1인분 요리에 최고의 절약템이다. 해동이 빠르고, 유통기한 압박이 없다.

레시피는 만개의레시피(10000recipe.com)에서 1인분 기준으로 검색하면 실패가 적다. 요리 초반에는 계량스푼을 쓰는 게 오히려 비용을 줄인다. 간장 1큰술이 소주잔 반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익히면, 실패해서 버리는 일이 줄어든다. 재고 관리는 메모 앱으로 했다. 냉장고 문에 붙이는 자석 메모도 좋지만, 스마트폰의 위젯으로 냉장/냉동/실온 3칸을 만들어 품목과 유통기한을 적어두면 외출 중에도 확인해 총동구매를 막을 수 있다. 유통기한 정보와 보관법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계란의 세척 여부, 김치의 보관 온도 같은 기본을 정리하면 상해서 버리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배달앱은 편하지만 의식적으로 주기를 정하는 편이 지갑에 이롭다. 배달의민족(baemin.com)과 요기요(yogiyo.co.kr) 모두 첫 주문 쿠폰이나 특정 요일 할인 이벤트가 있다. 나는 주 1회만 배달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간단 밀프렙으로 충동을 눌렀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1kg을 소분해 간장, 고추장, 소금후추 3종 양념으로 재워 냉동해 두면, 밥솥에 냉동밥과 같이 데워 10분 만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루틴은 회식 많은 주에는 과감히 건너뛴다.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려면 유연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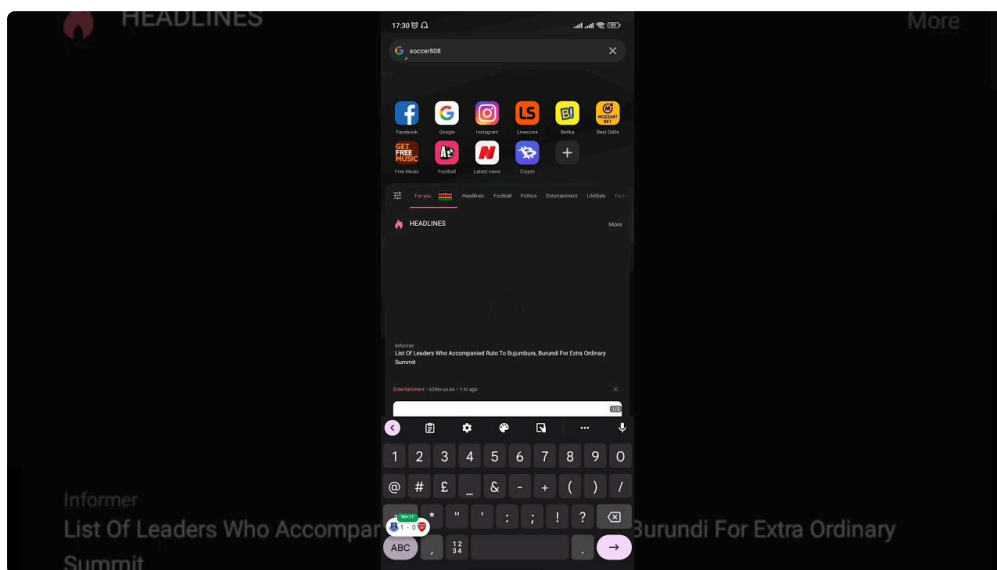
## 청소와 빨래, 장비보다 동선

청소는 장비에 투자하기보다 동선을 줄이는 쪽이 낫다. 작은 집일수록 특히 그렇다. 처음엔 무선청소기에 집착했지만, 물걸레 청소포 한 묶음과 소형 빗자루가 훨씬 자주 손이 갔다. 작은 먼지는 매일 닦고, 큰 청소는 주말에 몰아서 하는 패턴이 효과적이었다.

세탁은 코인빨래방을 병행하면 빨래 건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 많은 날 이불 빨래를 집에서 말리려면 반나절이 날아간다. 지도앱에 '코인빨래방'을 검색해 집과 직장 사이 한 곳을 지정해 두면 퇴근길에 맡기고 가져오기 좋다. 빨래 분류법이나 얼룩 제거 요령은 오늘의집 노하우(ohou.se) 게시글들이 그림과 함께 잘 정리되어 있다. 섬유유연제를 과하게 쓰는 건 오히려 흡수력을 떨어뜨린다. 수건은 세탁세제만, 침구는 세제 절반만 써도 충분하다.

## 대형폐기물과 분리배출, 벌금 피하는 지름길

집을 정리하다 보면 의자 하나, 전자레인지 하나처럼 덩치 큰 쓰레기가 나온다. 각 지자체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페이지에서 품목별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출력하거나 접수번호를 적어 붙여야 한다. 주소가 서울 은평구라면 구청 사이트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을 찾으면 전용 페이지로 연결된다. 지역마다 URL이 달라 외우기보다 지도앱에서 구청을 찍고 웹사이트로 들어가 검색하는 게 빠르다. 수수료는 의자 2천~4천 원, 전자레인지 3천~5천 원 정도로 품목과 크기에 따라 다르다. 아침 일찍 배출해야 수거 누락이 적다.



분리배출 표시는 음식물 잔재가 남으면 재활용이 불가하다는 점만 기억해도 절반은 해결된다. 투명 페트병은 라벨 제거 후 별도 배출, 캔은 내용물 비우고 가볍게 행군다. 헛갈릴 때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가이드인 환경부 '내 손안의 분리배출' 페이지 또는 카드뉴스를 검색하면 최신 기준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경비실에 지침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사진을 찍어두고 새벽에 확인 없이 버리는 실수를 줄였다.

## 중고거래와 나눔, 혼자 살수록 사회적 자본이 절약으로

필요한 물건을 무조건 새로 사는 습관을 바꾸면 월 지출 구조가 달라진다. 당근마켓(daangn.com)은 동네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져 이동 비용이 적고, 상대적으로 사기 리스크가 낮다. 번개장터(bunjang.co.kr, 예전 bungae.co.kr에서 도메인 통합)와 중고나라도 검색 폭을 넓힐 때 유용하다. 중고 전자제품은 직거래로 전원을 켜보고, 배터리 사이클이나 스피커 균열 같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면 실패 확률이 낮다. 5만 원 넘는 거래는 카페나 매장에서 만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습관이 안전하다.

나눔 문화도 의외로 중요하다. 필요 기간이 짧은 공구, 예를 들어 타카, 실리콘건, 사다리 같은 품목은 동네 커뮤니티에서 하루 대여가 가능하다. 관리사무소에서 간단한 공구를 대여하는 아파트도 있다. 내가 자주 다니는 코인빨래방에는 분실물 바구니에 세제 샘플이 종종 남아 있었고, 서로 양보와 나눔이 작동하는 작은 생태계가 생겼다.

## 싸고 합법적으로 스포츠 보기, 무료 중계 검색의 함정

‘스포츠무료중계’ 같은 검색어는 유혹적이다. 하지만 대부분 저작권을 침해하는 링크모음이거나, 악성코드를 심은 사이트가 섞여 있다. 팝업을 여러 번 닫게 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일단 의심하자. 합법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무료 또는 통신사 데이터 프리 혜택으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 네이버 스포츠(sports.news.naver.com) - KBO 하이라이트, 일부 프로배구·아마추어 경기, e스포츠 생중계. 지상파 중계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편이다.
- 아프리카TV(www.afreecatv.com) - e스포츠 공식 리그 다수, 아마추어 스포츠 중계. 공식 채널인지 채널 소개에서 권리 관계를 확인하자.
- KBS myK, MBC, SBS 공식 사이트 및 앱 - 지상파 스포츠 중계는 실시간 무료 시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권리 문제로 특정 종목은 제한된다.
- Wavve(wavve.com), TVING(tving.com), 쿠팡플레이(coupangplay.com) - 유료이지만, 통신사 결합이나 카드 제휴로 월 2천~5천 원대에 구독 가능한 프로모션이 자주 있다. 화질과 안정성 면에서 스트레스가 적다.
- 각 종목 협회 공식 채널 - 대한배구협회, KBO, K리그 등은 공식 유튜브와 웹사이트에서 하이라이트와 비공식 경기, 프리시즌을 무료로 본다. 일정은 협회 사이트 공지로 확인 가능하다.

무료라고 해도 합법 경로인지가 핵심이다. 저작권 표기, 공식 로고, 앱 마켓 등록 여부를 보고 판단하자. 특히 토렌트나 플레이어 설치를 강요하는 곳은 멀리하는 게 좋다. 보안이 취약한 무료중계 사이트에서 계정 유출, 악성 스크립트 감염 사례는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들었다. 합법 서비스는 화질과 음성 싱크가 안정적이고, 중간 광고도 통제되어 시청 스트레스가 적다.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정신건강 비용이 절약된다.

## 의료와 건강, 가까운 곳부터 정확하게

혼자 살면 아플 때가 가장 막막하다. 어디로 갈지 미리 정해두면 체감 불안이 크게 줄어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 찾기(www.hira.or.kr)는 야간·휴일 진료, 전문과목, 진료 대기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자정 넘어서도 문을 여는 약국이 집 근처에 있는지, 치과는 토요일 어디가 열려 있는지 즐겨찾기로 묶어두면 급할 때 바로 길을 잡는다.

예방접종도 미뤄두지 않는 게 좋다.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성인 대상 접종 권고와 내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감 백신은 직장 단체 접종이 없으면 동네의원에서 예약하고, 포인트 적립이나 카드 할인보다 일정의 유연성을 우선했다. 편한 시간에 맞는 병원을 찾는 쪽이 내실 있었다.

정신건강은 더 민감한 주제지만, 정보는 많다. 국립정신건강센터(ncmh.go.kr)에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를 찾고, 비대면 상담 연결 경로도 확인할 수 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폭발하기 전에 작은 신호를 다루는 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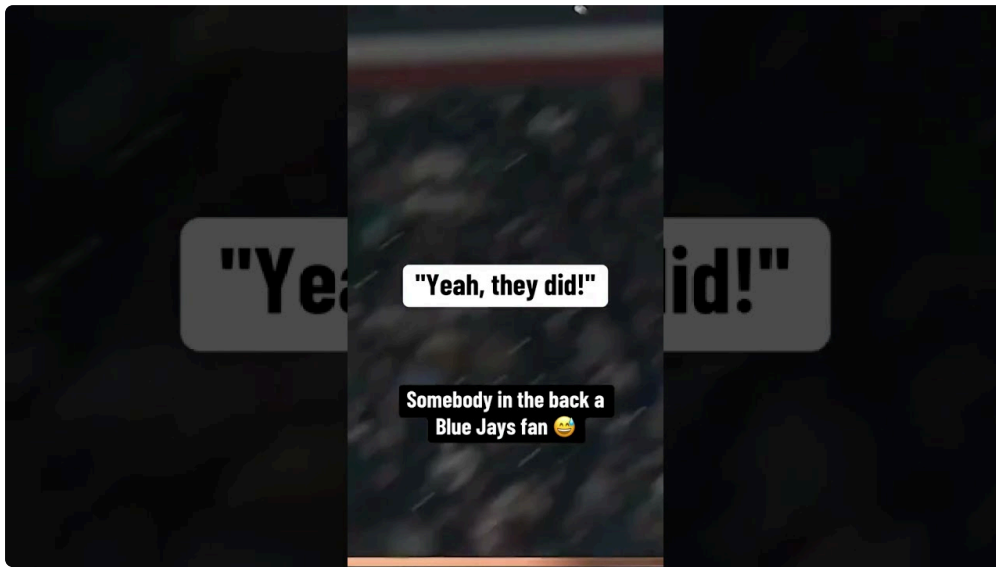
## 교통과 지도, 동네를 몸에 익히는 방법

지도앱만 잘 써도 이동 비용이 준다. 출퇴근 경로를 두세 개 저장하고, 우천 시나 지하철 지연 시 대체 경로를 만들어 두면 택시비를 아낀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은 실시간 교통량과 환승 정보를 제공한다. 자전거를 타는 경우, 서울이라면 따릉이나 지역 공공자전거 앱과 지도앱을 연동하면 시간 단위로 배열이 나온다. 편의점 택배 접수 가능한 지점도 지도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택배 반품, 중고거래 택배 발송은 편의점 택배를 주로 썼다. GS25, CU, 세븐일레븐 택배는 각각 전용 앱 또는 제휴 앱에서 예약 후 매장에서 접수하면 줄 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크기별 요금표를 캡처해 두고, 포장 규격을 통일하면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을 피한다. 에어캡은 대형문구점보다 다이소몰에서 세트로 사는 것이 저렴했다.

## 라이프로그와 가계부, 숫자는 기억보다 정직하다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습관은 자취생에게 사실상 보험이다. 토스(toss.im)나 뱅크샐러드(banksalad.com) 같은 자산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 계좌, 대출을 한눈에 본다. 가계부는 어렵게 잡지 말고, 먼저 식비와 카페 지출만 트래킹하는 식으로 시작했다. 2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인다. 아침 커피를 주 5회에서 3회로 줄이고, 나머지 이틀은 원두를 갈아 텀블러를 들고 나가면 월 2만 원 이상 줄어든다. 줄인 돈을 비상금 통장으로 자동이체하면, 갑자기 고장난 전자레인지 같은 변수에 버틸 여력이 생긴다.



구독 서비스는 분기마다 계정 설정에서 해지 가능 항목을 훑는다. 3개월 이상 접속 기록이 없는 서비스는 과감히 정리한다. 스트리밍은 혼자서도 패밀리 플랜을 쓸 수 있는지 규정을 확인해, 합법 범위에서 가족과 비용을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 공부와 자격, 현실보다 데이터

혼자 살면 자기계발에 쓰는 돈도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강의와 데이터베이스는 품질이 높다.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은 전자자료 열람과 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지 도서관 회원증을 만들면 전자책 대여가 가능하고, 인기 도서는 대기열이 길어도 새벽 시간에 풀리는 경우가 많다. 자격증 기출문제는 큐넷(www.q-net.or.kr)에서 제공하고, 시험일정과 응시자 유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민간 강의 플랫폼을 결제하기 전에 공공 자료로 베이스를 쌓으면, 필요한 유료 강의 범위가 좁아져 비용 효율이 올라간다.

## 생활 안전과 보안, 한 번 세팅으로 지속되는 평안

낯선 번호의 문자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다. 스미싱 의심 문자는 118로 신고하면 빠르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사이버민원센터(kr118.line.me 같은 특정 URL을 쓰지 않고 118 전화 접수가 가장 직관적이다)는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브라우저는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운영체제 자동 업데이트를 켜 둔다. 무료 백신은

여러 개를 중복 설치하지 말고 한 가지만 선택한다. 중복 설치하는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공용 와이파이에서 금융거래는 피하고, OTP나 인증 앱을 기본으로 쓴다.

집 주변 CCTV 위치와 비상벨 유무도 지도앱 스트리트뷰로 미리 확인해 두면 야근 후 귀가가 마음 편하다. 택배함 비밀번호는 초기값에서 바꾸고, 열리지 않을 때를 대비해 관리사무소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한다. 경량 소화기 하나를 배치하면 전기레인지 주변의 리스크를 크게 낮춘다. 건조기 필터 청소를 주 1회로 습관화하면 화재 위험과 전기요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 동네 정보, 사소하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팁

우리 동네 문화센터와 체육시설은 가성비가 좋다. 구청 문화강좌는 분기마다 접수하는데, 경쟁이 치열해 새벽 오픈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경우 브라우저 자동완성에 기본 정보를 저장해 두면 1~2분을 줄일 수 있다. 주민센터의 스터디룸, 회의실 대관은 무료 또는 소액으로 개방하는 경우가 많다. 조용히 화상회의나 면접을 볼 공간이 필요할 때 유용했다.

택배가 자주 분실되는 건물이라면, 택배사 '안전거점 배송'을 활용해 편의점 픽업으로 바꾸는 게 답이었다. 반대로 건물 관리가 철저하면, 문 앞 배송을 허용해 배송 기사님과의 소통 시간을 줄였다. 같은 도시라도 동마다 배달 가능 시간, 쓰레기 수거 시간, 도로 공사 일정이 다르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을 주 1회만 훑어봐도 생활 리듬이 맞춰진다.

## 링크모음은 꾸준히 손봐야 가치가 있다

사이트 주소모음, 링크모음은 한 번 만들고 방치하면 효율이 떨어진다. 새 정책이 나오고, 서비스가 합쳐지고, 도메인이 변경된다. 분기마다 10분만 투자해 살아있는 주소인지 눌러보고, 더 이상 쓰지 않는 서비스는 과감히 정리하자. 브라우저 북마크 폴더를 분야별로 나누되, 최상단에는 자주 쓰는 5개만 올려둔다. 정부24, 한전, 지도앱, 병원찾기, 대형폐기물 신청 페이지가 내 기준의 상위 5개였다. 당신의 생활 리듬에 맞게 순서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다면, 주소 변경 직후 지도앱 즐겨찾기를 비우고 새로 채우는 것을 추천한다. 집, 직장, 대형마트, 코인빨래방, 24시 약국,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배달 맛집 2곳, 공원 1곳을 우선 저장한다. 생활의 80%는 이 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필요한 순간에 바로 손이 가는 위치에 두면, 정보 탐색 시간이 반으로 준다.

## 마무리처럼 남기는 판단 기준

정보는 넘쳐나는데, 내게 맞는 것은 적다. 어떤 사이트든 세 가지 기준으로 본다. 첫째, 공식 데이터인지. 둘째, 내 생활 루틴과 결이 맞는지. 셋째, 내 시간을 아껴주는지. 예를 들어 스포츠를 볼 때도 '스포츠무료중계'라는 말에 끌려 들어가 시간을 버리기보다, 합법 서비스의 무료 구간과 제휴 혜택을 조합하는 편이 결국 비용과 스트레스가 동시에 줄었다. 장보기도 마찬가지다. 선택지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면, 피곤한 날에도 유지된다.

혼자 사는 시간은 누군가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대신 한번 길을 내두면, 그 길은 다음 달에도, 내년에라도 여전히 편하다. 여기 적은 사이트들은 그런 길을 내는 좌표들이다. 당신의 폴더에도, 당신의 리듬에 맞는 좌표를 더해가길 바란다.